

제6절 오곡2리(梧谷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서쪽으로 한티재(大峴)의 지맥(支脈)이 동(東)으로 뻗어있고 천현산록(天峴山麓)에 수진사(修真寺)가 있으며, 북은 황보리(黃堡里)와 경계를 이루고, 동은 월송3리(月松三里) 화구(花邱)마을과 닿아 있다. 마을 앞 냇물은 나라실들(飛良里)을 지나 황보천(黃堡川)과 합류하여 동해(東海)로 흐르고 있다. 남쪽은 오곡1리며, 천현산(天峴山) 줄기가 동으로 뻗은 야산(野山)을 뒤로 하고 비량천(飛良川) 냇가에 형성된 남향의 마을이다. 2015년에 마을회관을 개축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오곡리가 분구되어 오곡2리로 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오곡2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63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황씨(平海黃氏)가 대종을 이루며, 춘천 박씨(春川朴氏), 나주 나씨(羅州羅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성황당에서 제사를 올린다.

2) 수진사(修真寺)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에 천현산록(天峴山麓)에 창건된 사찰(寺刹)이며, 임진왜란 때에 소실(燒失)됐으나, 1963년 3월에 중건(重建)하였다.

5. 전설

1) 나라실, 날라실, 비량리(飛良里)

신라 진흥왕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비량현(飛良縣)의 소재지로 전해지며,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에서 학(鶴)이 날아갔다 하여 날라실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나라실’은 날라실의 변음이며, 한자(漢字)로는 비량리(飛良里)로 표기한다.

2) 물방앗골

이 마을의 자연부락으로 마을 입구에 물방아가 오래도록 있었다 하여 물방앗골 또는 물방아골로 부른다.

제7절 월송1리(月松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북쪽은 월송송림(月松松林)의 북쪽 끝에 군무봉(軍舞峰)이 있고, 동해로 흐르는 황보천(黃堡川) 하류와 맞닿아 있다. 남쪽은 남산(南山)과 남산리(南山里)가 있다. 동쪽은 저장(猪場)과 직고개리(直古介里)의 뒷산과 접하며 그사이에 월송평야, 남산들(南山野)이 있다. 북으로 월송2리와 경계를 하고, 서쪽으로 일출봉(日出峰) 지맥(支脈)을 뒤로한 동향의 마을이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신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관동팔경의 하나인 월송정(越松亭)⁹과 평해 황씨 시조단이 있으며, 울진의 대표적인 전통 대동놀이인 ‘월송큰줄댄기기’가 전승된다. 최근 월송포진 유적이 발굴되었다.

2. 마을의 역사

평해군 하리면(下里面) 신립역리(新立驛里)로 그 후 달효리(達孝里)로 되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개편에 의한 군(郡)의 통폐합으로 울진군 평해면 월송리(月松里)로 편제되었으며, 1944년에 행정구역리개편(里改編)으로 월송리가 1리·2리·3리로 분구(分區)되어, 월송1리가

9. ‘월송정’은 울진 지방의 문헌에서 ‘越松亭’과 ‘月松亭’으로 혼용되어 나타난다.